신인기수 김덕현, 데뷔부터 우승까지 출전은 '2번'

김덕현, 깜짝 우승…신인 맞아?

1일 제6경주 '삼정타핏'과 1위 돌풍
소년체전 출전했던 아마 복싱선수
친구 권유로 기수의 삶 "응원 부탁"

데뷔 2경기 만에 7월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벌어진 제6경주에서 '삼정타핏'을 이끌고 깜짝 우승을 차지한 김덕현 기수. 데뷔에 앞서 신인기수로서 서울 경마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의 신인 김덕현 기수가 데뷔 이후, 출전 2번 만에 우승을 거뒀다. 7월1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6경주(혼4등급, 1000m, 핸디캡)에서 '삼정타핏'(거, 3세, R51)과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 모두가 놀란 결과였다.

이날 김덕현 기수는 렛츠런파크 서울 제2경주에 첫 출전해 순위상금을 거머쥐며 순조로운 출발을 선보였다. 뒤이어 출전한 6경주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우승을 이뤄내며 경마팬을 놀라게 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아마추어 복싱선수로 소년체전 등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복싱은 자신의 신체조건과는 맞지 않는 종목이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고민 끝에, 자신에게 꼭 맞는 기수라는 직업을 발견했다. 마침 경마특성화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어, 기수라는 직업은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다. 함께 운동하던 친구의 권유가 컸다. 처음에는 부모님 모두 반대했지만, "성실하게만 하면 기수로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으로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6월18일 김덕현 기수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의 신인기수로 고객에게 직접 인사를 했다. 무엇보다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다. 2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수습 기수로 데뷔한다고 생각하니, 벅차기도 했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다. 경주에 실제로 출전한 것도 동료 신인기수들보다 1주 정도 늦었다. 박재우 조교사(50조)의 권유로 충분히 연습을 거친 뒤에 나가기로 했다.

뒤늦은 출발에 대한 염려도 잠시, 충분한 연습이 경주 당일 빛났다.

경주초반 '삼정타핏'은 빠르게 선두권으로 진입해나갔지만, '브이칸(수, 3세, R57)'과 '헤일로버드'(암, 4세, R51)가 이를 막으며 우승을 놓고 각축전을 펼쳤다. 우승은 '브이칸' 또는 '헤일로버드'로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삼정타핏'은 매서운 추입력을 보이며 역전승을 거뒀다. 김덕현 기수는 "평소 얌전한 삼정타핏이 경주당일 유난히 예민했다. 음성으로 부드럽게 달래주며 안심을 시켰다"고 했다. 충분한 연습과 말에 대한 교감이 이뤄낸 결과였다.

기수로서의 최종목표를 묻자 "'행동없는 신념은 오만과 자만일 뿐이다'는 말을 좋아한다. 성실하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기수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클린업조이의 부산행' 개봉박두

9일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 출전
서울경마 랭킹 1위 자존심 걸고 원정
트리플나인·챔프라인 등 경쟁마 쟁쟁

클린업조이의 2016그랑프리 우승순간.

서울경마 랭킹 1위 '클린업조이'가 제13회 부산광역시장배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상반기 그랑프리로 평가받는 제13회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GIII, 1800m, 3세 이상)가 7월9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일요경마 제5경주로 펼쳐진다. 한국경마 최고 상금인 10억원을 놓고 펼쳐지는 코리아컵(GⅠ)에 출전하기 위한 예선전이다. 서울과 부경경마의 내로라하는 경주마들이 총출동해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

관심사는 서울경마 최고의 레이팅(능력지수) 125점을 보유한 '클린업조이(서울, 미국산 5세 수말, 민형근 마주)'의 활약 여부다. 2016년 그랑프리배(GI) 우승마로 2013년 '터프윈' 이후 이루지 못한 서울경마의 부산광역시장배 첫 우승을 자신한다. 지난해 10월 KRA컵 Classic(GⅡ) 우승을 시작으로 그랑프리 우승 등 5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장배에 출전해 4위에 그친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이번에 완벽한 설욕전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선 홀로 원정에 나서는 형편이지만 '클린업조이'이기에 우승 기대치가 높다.

부경경마도 대항마를 준비했다. 2017년 두바이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트리플나인(국산 5세 수말, 최병부 마주)'과 560kg 거구이지만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유한 '챔프라인(국산 5세 수말, 류화영 마주)', 2017 한일전에서 우승한 '돌아온포경선(미국산 4세 수말, 김진영 마주)' 등 부경경마를 대표하는 스타 경주마들이 나선다.

2년(2015, 2016) 연속 연도대표마에 등극한 '트리플나인'은 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에서 펼쳐진 두바이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해 한국경마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주인공이다. 통산 20전 11승, 2위 7위 승률 55% 복승률 90%의 막강한 경기력으로 우승을 자신한다.

최근 정상급 경주마를 상대로 5연승을 달린 '챔프라인'은 거구의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손쉽게 경쟁자들을 이겨왔다. '돌아온포경선'은 아직 장거리 경주 경험이 부족하지만 3연승 중인 차세대 스타경주마로서 이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3세 기대주 '아임이유파더'와 '킹오브에이스' 등도 복병마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슈퍼루키' 이현종 후보생 졸업 "축하축하!"

조재로 등 7명 정식기수로 새 출발

6월30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원당 경마교육담당 야외 교육장에서 '2017 더러브렛 기수 후보생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은 7명으로 슈퍼루키 이현종 기수를 비롯해 조재로, 이용호, 김태훈, 하정훈, 박재이, 진겸 기수가 정식기수로서의 새 출발을 기념했다.

이날 기수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장동호 인재교육원장과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유관단체, 졸업생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생 모두에게 졸업장과 함께 상품이 전달됐으며 성적 우수자들은 상장과 표창패를 받았다. 교육성적 최우수자에게 주는 '한국마사회장상'은 이현종(렛츠런파크 서울) 기수에게 돌아갔다. 교육성적 우수자로 선정된 조재로(렛츠런파크 서울) 기수와 이용호(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기수는 각각 '서울조교사협회장상'과 '서울기수협회장상'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장상'을 받은 이현종 기수는 2015년부터 2년여의 평가기간 동안 627번 출전해 85번 우승을 기록했다. 2016년 5월 한국경마 최단기간 40승을 달성했고 2016년 연도대표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받기도 했다.

이현종 기수는 "경주마처럼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인 것 같다. 앞으로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려고 했는데 군 입대를 하게 됐다.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 잊지 말아 달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동호 인재교육원장은 "4년의 힘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명실상부한 기수로서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경마라는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로 우수한 기수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답사는 졸업생 대표 조재로 기수가 했다. 김종건 기자

렛츠런파크 서울, 출석체크 경품이벤트

렛츠런파크 서울이 7월부터 9월까지 출석 체크 이벤트를 실시한다. 더운 여름에 렛츠런파크 서울을 찾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7~8월에 시행하는 '렛츠런 워터 아케이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본 이벤트는 2회 진행한다. 1차는 7월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출석체크를 한다. 총 4번 가운데 3회 이상 출석하면 응모자격을 준다. 응모는 7월 4주차부터 가능하다. 제35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주가 벌어지는 7월30일 추첨을 통해, 1대의 LED TV와 구매권 등 10명에게 행운이 돌아간다. 2차 이벤트는 8월5일부터 9월2일까지다. 매주 토요일 출석체크를 해 총 5회 가운데 3회 이상 출석도장을 받으면 응모 가능하다. 응모는 8월 3주차부터 가능하다.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가 열리는 9월3일에 추첨으로 LED TV 1대와 구매권을 준다.

김종건 기자

뉴스디자인 | 이수진기자

장미여관과 뮤직비어축제 즐기세요

렛츠런파크 말 테마파크서 22일 개최
K-POP 댄스팀 등 출연…이벤트 풍성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7월22일 렛츠런파크 말 테마파크에서 록밴드 장미여관과 함께하는 뮤직비어 축제(사진)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규모의 말테마파크를 배경으로 1만원에 감동이 있는 유쾌한 콘서트와 무제한 맥주를 제공한다.

22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이번행사의 입장료는 1만원으로 소셜커머스 쿠팡을 통해 사전 구매가 시작됐다.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한국형 푸드트럭 스타일의 메뉴들도 선보여 맥주뿐 아니라 치킨, 스테이크, 새우요리 등 다양한 안주를 구입할 수 있다.

올해 2회째인 렛츠런파크 맥주축제는 올해부터 뮤직페스티벌로 변신을 꾀했다. 독창적인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록밴드 장미여관이 무대에 오른다. 탄탄한 연주력과 뛰어난 예능감을 갖춘 이들은 히트곡 '봉숙이'를 비롯해 드라마 '미생'의 주제곡이었던 '로망'과 '서울살이' 등으로 이번 무대를 채운다. 어쿠스틱 2인조 밴드 '문센트', 보컬 퍼포먼스 그룹 '비스타', K-POP 댄스팀 '플라이위드미', 5인조 미녀커버댄스그룹 'BNG'등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KBS 맛도령으로 유명한 MC 정희택의 진행으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댄스 경연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준다.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8월31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3000원의 이용료로 즐길 수 있다. 초대형 워터풀장에서의 시원한 물놀이는 물론, 100m에 달하는 스릴 넘치는 워터슬라이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말을 주제로 한 빛테마파크 일루미아에서는 '빛의 마(馬)법'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조명연출을 통해 환상의 나라가 펼쳐진다. 행사관련 자세한 일정 확인이나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www.kra.co.kr)나 콜센터(051-987-1924)로 하면 된다. 김종건 기자

스포츠토토

"SK, 롯데 꺾는다" 44%

롯데 2~3점-SK 4~5점 예상 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7일 열리는 2017시즌 KBO리그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7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4.12%는 롯데-SK전(2경기)에서 원정팀 SK의 승리를 내다봤다.

홈팀 롯데 승리 예상은 40.59%였고, 나머지 15.30%는 같은 점수대를 점쳤다. 최종 점수대로는 롯데 2~3점-SK 4~5점 예상(5.20%)이 1순위였다.

삼성-넥센전(1경기)에서도 원정팀 넥센 승리 예상(43.93%)이 홈팀 삼성 승리 예상(42.37%)을 근소하게 앞섰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3.72%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삼성 4~5점-넥센 6~7점 예상(5.38%)이 가장 많았다.

NC-두산전(3경기)에선 홈팀 NC 승리 예상(45.14%)이 원정팀 두산 승리 예상(38.39%)과 같은 점수대 예상(16.46%)을 앞질렀다. 최종 점수대로는 NC 4~5점-두산 2~3점 예상(5.42%)이 최다였다. 7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야구토토 스페셜 57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삼성 vs 넥센		롯데 vs SK		NC vs 두산	
경기일시	7.7(금) 18:30		7.7(금) 18:30		7.7(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4~5)-(6~7)	5.38%	(2~3)-(4~5)	5.20%	(4~5)-(2~3)	5.42%
2	(2~3)-(6~7)	5.26%	(4~5)-(2~3)	5.16%	(8~9)-(4~5)	5.08%
3	(2~3)-(4~5)	4.71%	(4~5)-(8~9)	4.72%	(6~7)-(2~3)	5.04%
홈팀 승	42.37%		40.59%		45.14%	
같은점수대	13.72%		15.30%		16.46%	
홈팀 패	43.93%		44.12%		38.39%	

* 게임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7. 7(금) 18시 20분

토토언더오버 26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토토언더오버 26회차를 발매한다.

토토언더오버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또는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높은지를 예상하는 배당률 게임이다.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면 언더(U), 초과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26회차는 9일 벌어지는 KBO리그 4경기, K리그 클래식 3경기 등 총 7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KBO리그에선 LG-한화전(1경기), 삼성-넥센전(2경기), 롯데-SK전(3경기), NC-두산전(4경기)이 선정됐다. K리그 클래식에선 수원-제주전(5경기), 광주-서울전(6경기), 강원-상주전(7경기)이 뽑혔다. 9일 오후 5시5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스포츠토토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하네

영상제작 분야 김영규씨 대상 수상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스포츠토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열기와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인했다.

스포츠토토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선 번뜩이는 참가자들의 기획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가장 눈에 띈 부문은 주최측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었던 영상제작 분야였다. 무려 44건의 출품작이 몰린 이 부문에선 '선을 넘지 말고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한 김영규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씨는 불법스포츠도박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를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행심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불법스포츠도박이 범람하는 요즘, 유일한 합법사업체인 스포츠토토라도 반드시 정확한 선을 지켜야만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5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상금이 걸린 운영전략 부문에서도 젊은 아이디어가 빛났다. 191건의 응모작들 가운데 대상을 차지한 계명대생 황규도-유영민 팀은 '100원만 주세요'라는 제목의 작품을 통해 100원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들은 과거 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화폐가치를 지닌 요즘의 100원이지만, 스포츠토토에선 스포츠 관전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부각시켰다.

케이토토 윤종원 마케팅부장은 "스포츠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덕분에 케이토토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기분"이라며 "참가자들의 소중한 조언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케이토토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